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2년 2월

교육학석사(체육교육)학위논문

여자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장벽과 진로포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김 주 영

여자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장벽과 진로포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areer barriers and career aspiration on decision
level of career of Taekwondo Woman major

2012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김 주 영

여자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장벽과 진로포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areer barriers and career aspiration on decision
level of career of Taekwondo Woman major

지도교수 : 이 계 행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체육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11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김 주 영

김주영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 경 일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윤 오 남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계 행 인

2011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 문제	4
4.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5
1. 진로(career)의 개념 및 진로발달 이론	5
2. 진로장벽의 개념 및 진로 이론에서의 장벽	12
3. 진로포부	21
4. 진로결정수준	24
III. 연구방법	35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35
2. 조사도구	36
3. 구성개념들간의 상관관계	37
4. 자료처리방법	38

IV. 분석결과	39
1. 여자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39
2. 여자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포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43
V. 결론 및 논의	48
1. 결 론	48
2. 논의	49

<표 목차>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5
표 2. 구성개념들간의 상관관계	37
표 3. 진로장벽이 회의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40
표 4. 진로장벽이 부정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41
표 5. 진로장벽이 도움필요 수준에 미치는 영향	42
표 6. 진로포부가 결정된 수준에 미치는 영향	43
표 7. 진로포부가 회의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44
표 8. 진로포부가 부정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회귀분석)	45
표 9. 진로포부가 도움필요 수준에 미치는 영향	46
표 10. 진로포부가 결정된 수준에 미치는 영향	47

ABSTRACT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and career aspiration on decision level of career of Taekwondo Woman players.

Kim, Ju Young

Advisor : Prof. gye-haeng Lee Ph.D.

Major in Phys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Carrer barriers are defined as obstructive factors or situations to a person's career development and their influence is deemed to be carried out by how he or she perceives them. Many studies report that the level of perceived career barriers affects caeer decision level. The influence level of perceived career barriers is affected by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and trait anx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influence of barrier to course of life and ambition on decision level of life course and to provide the result to taekwondo major woman students to help analysing mental, sociologic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which could be faced with course of life.

By suing straiified cluster random sampling 300 university students who major the taekwon were sampled as subjects through seoul, gyonggi area. Questionnaire date were obtained from alll subjects by self administration method and 291 out of 300

cases were used as valid samples

Results of the analysis could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What are the differences among the Barrier to courses of life ambition and decision level of life course between the major of the sample.

Based on the result major influences to barrier to courses of life and ambition and grade only influences to ambition. Barrier to course of life presented high relationship with decision level of life course than ambition. Most impactful factors between barrier to courses of life and decision level of life course was no plan barrier and no effort ambition. So taewondo woman major students were required systematic plan to course of lif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과거의 노동중심 사회에서 현대의 지식정보화 사회로 전환하면서 직업의 다양화와 전문화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기술과 문명의 급속한 발달 및 사회가치 변화로 인하여 진로를 계획하고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 점차 복잡하고 중요한 과정으로 되었다. 특히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입문을 하게 되는 진학 및 진로에 대한 걱정은 학생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직면한 문제일 것이다.

이처럼 진로란 앞으로 자신이 평생 지니고 가야할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의미로 일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람들 각자의 태도, 가치관, 기대감을 포함한 일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고 하였다(Storey, 1979). 하지만 극도의 경쟁사회와 더불어 평생직업의 개념이 사라지고 취업전쟁이라는 좁은 관문을 통과하기가 어느 시대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다. 특히 이와 같은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일반학과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을 육성하는 학원스포츠에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문제로 남아있다. 이중 취업 및 진학에 있어서 사회적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여성이 선두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태권도를 전공하고 있는 여대생의 경우가 더욱 그러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특히 우리고유의 무도이자 세계적인 자랑인 태권도 경기에서도 남자부 경기에 집중이 되어 있을 뿐 여자 경기에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으며 메달을 획득하더라도 남성의 그늘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여성 태권도 전공자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로 진로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특히 무도 스포츠라는 제한적인 요건 때문에 태권도를 전공하고 있는 여대생들의 진로에 관한 장벽에 막히게 되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처럼 진로장벽은 진로발달 측면에서 자신의 진로선택이나 진로계획, 진로진행 등을 어렵게 할 것으로 생각되는 장벽요인들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학 태권도 전공자들에게 있어서 진로장벽은 심각한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 중 여자 태권도 전공자들은 무도 스포츠라는 특성과 더불어 여성스럽지 못하다는 사회적 편견과 함께 더욱 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게 된다. 또한 다른 여대생들과는 다르게 태권도 전공을 하고 있는 여대생들의 진로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태권도 전공자들은 체육학과에 속해 있거나 태권도 학과에서 태권도를 전공하는 학생들로써 그들이 졸업후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곳이 그들의 전공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태권도 전공 여대생들의 자리 또한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환경자체가 그들의 장벽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졸업을 앞둔 태권도 전공 여대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막연하게 생각해 왔던 자신의 전공에 따른 진로방향 등이 현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특히 전국의 태권도 학과에서만 배출되는 수많은 태권도 전공자들 사이에 여성 졸업예정자들은 졸업을 앞둔 시기에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자신이 어디에 위치에 있는가를 가름하는 판단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오게 된다. 즉,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진로장벽은 진로를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태권도 전공자들처럼 제한적인 진로의 가로에 서 있는 여대생들은 더욱더 그렇다.

하지만 진로장벽과 진로결정과의 관계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부적 상관성을 보고한 연구(Luzzo & Jenkins, 1996), 상관을 확인할 수 없었던 연구(Shuttleworth, 1992; Swanson, Daniels & Tokar, 1996), 혹은 정적인 결과를 낼 수도 부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연구(Swanson & Tokar, 1991) 등이 진행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진로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써 자신의 포부를 들 수 있다. 진로장벽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에 가로막혀 있는 벽이라 한다면 포부는 그 벽을 투시하는 힘을 지닌 내적인 상태라고 말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결정을 하는데 자신이 지니고 있는 포부로써 진로장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태권도 전공자들은 해외진출을 위한 운동만을 열심히 하여 국위선양에서부터 개척까지 이루어 왔으나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특히 태권도 전공자들의 대학 진학률이 점차 높아지면서 태권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과거의 어느 때보다 태권도를 전공하여 태권도 자체를 진로로 결정하는 태권도 수련생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이들의 향 후 앞날에 대한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것만은 아니다. 특히 이러한 환경 내에서 태권도를 전공하는 여대생들은 극복의 노력보다는 스스로 무너지는 현상이 만연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 태권도 여자 전공자들의 진로장벽과 포부가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를 밝혀 향후 대학 태권도 여자 전공자들의 진로결정을 돕는 진로상담 및 진로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2. 연구의 목적

여자 태권도 전공자들의 진로장벽과 진로포부가 진로결정수준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3. 연구 문제

연구문제1 : 여자태권도 선수들의 진로장벽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2 : 여자태권도 선수들의 진로포부는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전국의 모든 여성 태권도 전공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여성의 진로장벽이 남성보다 높다는 것은 사회적인 편견에 의한 연구자의 가정이기 때문에 일반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진로(career)의 개념 및 진로발달 이론

1) 진로

개인이 일생을 통해서 갖게 되는 직업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진로를 직업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했으나 현대에 와서는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다수의 직업이 생겨남에 따라 그 구별이 필요해졌다. 즉, 진로는 개인이 종사하는 직업의 계열을 의미한다.

정석민(2000)은 진로는 사람이 일생동안 살아가는 길을 의미하며, 대학진학은 개인의 진로 결정을 바탕으로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 분야를 학문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과정이라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학생들은 자기의 인생 목표와 진로에 대하여 깊은 고려와 탐색 없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의 적성이나 가치관에 대한 이해 없이 직업이나 일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객관적 정도도 없이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고 있으며, 대학의 학과 선택에 있어서도 이런 이유로 해서 소위 인기학과라는 곳으로만 지원이 몰리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진로에 대한 자아개념과 직업에 대한 이미지를 비교하고 그 일치성의 정도를 결정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개인의 직업포부는 형성된다(황매향, 김지현, 유정이, 2003).

진로지도는 진로교육의 하위개념으로 진학지도와 직업교육을 포함하며, 학생의 흥미,

적성, 능력, 환경에 맞는 직업이나 진학 과정에 잘 적응하고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의미한다.

진로교육은 개인의 진로발달을 촉진하는 계획된 교육적 경험과 일의 세계에 대한 준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의 직업교육이며, 직업적성 교육이다. 즉,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의식하는 인간교육이며 직업준비 교육이다. 또한 진학지도와 직업지도를 포함하는 진로지도의 상위 개념이기도 하다.

이재창(1995)은 대학에서의 진로교육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진로지도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가 진로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 필요한 것은 자기탐색과 자기기이해가 필요하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장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자신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자신의 적성과 흥미는 어떠한지, 자신의 다른 심리적 특성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둘째, 학생들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는 자신이 종사할 직업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로 하여금 직업세계를 전체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전체적인 틀 속에서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직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일반적으로 진로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적성이나 지능과 같은 인지적(cognitive) 요인들에 치우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의 능률과 성공을 가져오려면 인지적 요인뿐만 아니라 흥미나 동기와 같은 정의적(affective) 요인도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넷째, 대학에서의 진로교육과 진로지도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직업관과 직업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훌륭한 직업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는 직업이다.

다섯째, 진로지도의 마지막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진로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정보,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그리고 자신의 직업관과 가치관 등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 의사결정(decision-making)을 해야 한다.

여섯째,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에 제대로 취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취업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자신의 전공이나 특성 등에 적합한 직업을 찾는 일에서부터 입사원서 및 이력서 작성법 그리고 면접방법까지 모두 포함이 된다.

일곱째,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진로선택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직업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선택은 일시적이지만 선택한 직업에서는 오랜 기간 일을 해야 한다.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과 적성,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에 알맞은 진로를 선택하는 일은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다. 이봉훈(1993)은 운동이나 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자신의 운동에 대한 소질과 적성, 성격, 흥미, 신체적 조건 등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자신의 환경이나 사회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하여야 한다. 운동이나 이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려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운동을 직업으로 선택할 때 자신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이해는 진로선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둘째, 체육활동의 목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체육활동은 훌륭한 신체 및 체력조건 뿐만 아니라 고도의 훈련이나 극렬한 신체활동도 인내하고 소화할 수 있는 극기와 정신력이 요구된다.

2) 진로발달 이론

대학생 시기에 진로를 선택하는 일은 발달적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에도 매우 중요

한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대학생 시기가 학교 교육을 마치고 직업세계로 이행하는 시기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학생들은 대학생활에서 진로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고 있으며 또한 대학학생생활상담소를 찾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진로문제를 호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직업적성검사를 받거나 진로 의사결정에 관한 훈련 등을 받는다(한정신, 1991).

김봉환(1997)은 대학생들의 진로준비에 도움을 주는데 있어서 인지나 태도 측면뿐만 아니라 행동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재창(1986)은 진로발달 이론에 인간발달의 개념을 진로교육에 도입하면서 진로발달을 개인의 전체적인 발달의 한 측면으로 보고 있다. 즉, 이와 같은 발달의 기본 논리는 인간이 다른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 마찬가지로 진로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기능도 어려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청년기에 성숙해진다는 것이고 김충기(1995)는 진로발달을 개인의 성장·발달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일의 가치를 발견하고 직업정체감을 구체화하며, 직업기회를 배우고 시간제·전일제 환경 또는 여가선용을 계획하는 평생의 과정이라고 말한다.

Super(1957)에 의하면 진로발달은 일생을 통한 과정으로 일생동안 장기적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이론적 전제를 가지고 있다. 개인은 부분적으로 자신의 심리적·생리적 속성에 의해서 그리고 부분적으로 중요타자를 포함하는 환경조건에 의해서 결정된 비율에 따른 전체발달의 한 측면으로서 직업적으로 발달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진로유형 연구에서 진로발달 단계를 ■ 성장기(growth, 출생에서 14~15세) ■ 탐색기(exploratory, 15~24세) ■ 확립기(establishment, 25~44세) ■ 유지기(maintenance, 45~64세) ■ 쇠퇴기(disengagement, 65세 이상)의 5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대학생은 탐색기의 잠정적인 단계로서 선택이 좁아지지만 최종적인 것은 아니며

잠정기(15~17세), 전환기(18~21세), 시행기(22~24세)로 다시 세분화되어 전개된다. 특히 대학 시기는 자신의 진로자아 개념이 확립되어 가는 전환기와 자기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을 선택하여 종사하기 시작하는 시행기에 해당된다.

그 후에 대학생 시기에는 직업의 선택이나 진로결정은 졸업에 임박하여 순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4년 동안 계속적으로 자신의 적성, 흥미,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고 희망직업을 구상하여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진로준비단계라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더 확실한 직업정보를 얻고, 대안적 진로를 선택하고, 직업결정을 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고 학교, 여가활동, 시간제 일 등을 통해서 자기 검증, 역할수행, 직업적 탐색을 한다. 이 단계의 하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체화(crystallization) 단계는 그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명확하게 하는 단계이다. 개인이 진로변경을 할 때는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를 다시 검토함으로써 이 단계를 재순환 할 수 있다.

둘째, 상세화(specification) 단계는 대학생들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업을 갖게 되는 학생들에게 해당된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이 선호하는 것들을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어떤 대학생들은 더 전문화된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원이나 전문분야의 교육과정을 택할 수도 있고 다른 학생들은 직업 안에서 구체적인 직무를 분명히 할 필요도 있다.

셋째, 실천(implementation) 단계는 직업을 갖기 직전의 마지막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진로목적을 수행할 계획을 세우고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통로를 확보한다. 예를 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접촉하거나 학교의 상담실이나 취업정보센터 등을 활용하게 된다. 아울러 이력서 작성하는 법, 면접기법 등을 배우고 실제로 원서를 내고 취업을 시도하게 된다.

한편 Ginzberg, Ginburg, Azelrad, Herman(1951)은 직업 발달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보았다.

첫째, 환상기(fantasy period, 6~10세)는 현실여건,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특정 직업을 택하여 그 직업에서 하는 일을 놀이 활동을 통해서 표출하려고 한다.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이 있는 현실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욕구를 중시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하 수 있다고 믿는 시기이다.

둘째, 잠정기(tentative period, 11~17세)는 자신의 소망과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고려한다. 처음에는 직업에 대한 자신의 흥미에만 관심이 집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흥미나 관심만으로 직업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시기이다.

셋째, 현실기(realistic period)는 17세 이후가 되는 시기로 특정 직업에 필요한 훈련, 자신의 흥미나 재능, 직업기회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하는 시기이다.

Ginzberg et al.,(1951)의 이론은 진로교육에 필요한 개인의 진로성숙도의 기준을 제공하고 진로선택 과정에서 각각 단계별 문제의 발견과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의 이론은 진로선택과 진로발달이 전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진로선택에 있어서 비가역성(irreversibility)은 타당하지 않고 저소득 가정환경, 부모의 태도와 가치관, 부실한 교육기관, 학교수준 및 학교와 직업 간의 비효율적 연계 등의 억제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직업세계에 대한 기회제공에 많은 역점을 두어야 하며, 진로를 탐색하는데 가치지향이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수정하였다.

개인은 다른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하는 것처럼 직업에 대한 지식, 태도, 기능도 어려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일련의 단계를 거치며 발달하는 것이다. 개인은 자신의 욕구, 능력, 가치관, 흥미 등의 내적 요인과 가정환경, 부모의 영향, 직업조건 등의 외적요인과의 타협을 통해 직업선택을 하며, 나이가 들수록 이 같은 능력이 발달하게 된다는 것이다(김충기, 1986).

Blustein(1987)에 의하면 청소년기의 중심과제로는 형식적, 조작적 사고와 도덕성의 발달, 신체적 성숙과 이성을 향한 관심,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 자아정체감 등이 있다.

박아청(1990)은 Erikson의 ‘발달 단계 이론’에서 다섯 번째 단계인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을 정체감 성취 대 정체감 혼미로 보았다. 이 시기는 어린 시절의 안정감으로부터 벗어나는 심리적 유예기이다. 이 시기에 직업적, 성적, 종교적인 문제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많은 가능성들과 직면하게 되고 이런 다양성 가운데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의 과정은 단순하고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갈등과 내적인 고통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또한 이 과정은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영역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다양한 양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 부모와의 관계, 동료, 문화적 요인들이 정체감의 수립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과정을 통해 직업, 이성, 종교 등의 다양한 역할과 영역에 있어서 확고한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 보다 성숙하고 유능한 성인으로서의 성장에 있어 중요하다.

곽윤숙(2002)은 성인 초기의 과업은 자신의 미래에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일이라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초기에 장래의 직업을 위해 준비하고 특정한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는 개인의 정체감 확립을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 시기에 많은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하여 많은 혼란을 경험하는 것은 탐색기에서 확립기 단계로 이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짐작하게 한다(정홍원, 2002).

진로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대학생 시기에 체육전공자는 체육과 관련된 학문의 이론적 지식과 이에 병행하는 운동기술의 습득을 위한 교과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는 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모든 대학생을 의미한다.

임수원(2004)은 각 대학의 체육대학 내 계열학과 및 사범대학의 체육교육과를 포함하여 체육을 교수하는데 필요로 하는 이론적 지식과 이에 병행하는 운동 기술의 습득을 위한 교과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는 학과를 총칭하여 체능계라고 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1998)에 의하면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대학전공을 본인 스스로 결정한다(73.7%)는 결과는 그만큼 청소년들의 자의식이 강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족도의 비율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고 특히 예·체능계열의 경우 만족도가 겨우 18.2%로 나타났다는데 대학생들의 불만족 요인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취업 부담이 40.3%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진로장벽의 개념 및 진로 이론에서의 장벽

1) 진로장벽(career barrier)의 개념

Crites(1969)는 진로장벽이란 직업이나 진로계획에 있어서 자신의 진로목표실현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내적·외적 요인들이다. 여기서 내적장벽은 심리적인 측면의 장벽들이며, 외적장벽이란 주로 환경에서 발전될 수 있는 장벽들이다. 이러한 장벽들은 진로선택의 상황이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하고자 할 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 진학 등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선택과 목표, 포부, 동기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역할 행동을 방해할

것으로 지각되는 여러 부정적인 사건이나 사태라고 정의하였다.

대부분의 초기 진로장벽(career barrier) 연구들은 장벽을 내적인 장벽과 외적인 장벽,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Crites(1969)는 ‘진로발달과정을 방해하는 위협적인 조건들’로 장벽을 기술하면서, 장벽을 ‘내적 갈등(자기개념, 성취동기)’과 ‘외적 갈등(작업장이나 임금에서의 차별 등)’ 등의 이분법적 분류로 구분하기 시작했다. 후속 연구들도 Crites(1969)의 내적-외적 이분법을 적용했다. O’Leary(1974)는 여성들의 진로 열망을 고취시키기 위해 여섯 개의 내적장벽(예, 실패에 대한 공포)와 네 개의 외적장벽(예, 성역할 정형화)로 가정했고 Farmer(1976)는 여성들의 진로 성취에 대해 여섯 개의 내적이거나 자기-개념 장벽들과 세 개의 환경적인 장벽을 가정했다. 반면 Harman(1977)은 여성들의 진로 발달에 대해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장벽 둘 모두를 기술했다.

비교적 최근에는 경험적인 연구들로부터 진로 선택 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 장벽의 구성개념이 중요하다는 증거들이 제시되기 시작했다. Russel & Rush(1987)는 관리적 여성의 관점에 대한 연구에서 28개의 내적, 외적 장벽의 영향을 평가하면서 ‘부적절한 관리 특성, 가족·사회적 관심, 조직적인 장벽, 제한된 교육이나 경험, 여성주의적 관심, 미래에 종속된 저항 등 6가지 진로장벽요인을 요인 분석 결과 밝혀냈다.

이러한 진로장벽 구성 개념은 여성의 진로발달 맥락 안에서 보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진로발달 이론들에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Gottfredson(1981)은 개인의 자기-개념과 지각된 직업에 대한 접근 용이성 상이의 상호작용이 사회나 경제 환경 내에서의 장벽물을 포함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술하면서 개인들이 직업적인 열망을 실행하기 위해 장벽에 직면할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타협할 필요에 마주치게 된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 이론은 자기개념,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환경, 그리고 자기개념과 환경의 상호작용 세 영역에서 장벽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반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

Gottfredson(1981)의 이론이 영향을 받은 Swanson et al.(1991)은 대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잠재적인 장벽 영역을 전통적인 내적-외적 이분법적 분류 대신에 사회적·대인 관계적 장벽, 태도적 장벽, 상호작용적 장벽, 이렇게 세 개의 큰 장벽 범주로 분류했으나 이 분류 체계는 이후 많은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이 분류에서 사회적·대인관계적 장벽은 자신의 가족, 미래 결혼, 자녀들에 관한 장벽을 언급하고 태도적 장벽은 자기 개념, 흥미, 일에 대한 태도 같은 속성상 내재적인 것을 상호작용적 장벽은 인구통계학적 특성들, 일에 대한 준비, 작업환경에 관련된 어려움 등을 나타냈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에서 Swanson et al.(1996)은 장벽의 구성요인이 진로선택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유용하다는 것이 제시되어 왔지만 사람들이 지각하는 잠재적인 장벽의 영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과 진로장벽 개념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구체적이고 명료한 정의를 얻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그 이유로는 진로 장벽 구성개념에 대해서 연구 결과들이 통합될 수 있고 후속 연구 가정들이 파생될 수 있는 확실한 이론적인 틀이 부족한 점과 장벽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대부분이 연구자들마다 자신의 연구에만 이용되는 자의적인 측정치를 사용해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전 연구들은 진로 선택 과정의 다양한 단계에 걸쳐있는 지각된 장벽의 범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지 못했고 또 결과를 기존 분류 체계에 직접적으로 관련시키지도 못했다.

그러나 최근의 사회인지이론을 적용한 Lent, Brown & Hackett(1994)의 모델은 진로 관련 장벽을 이해하는데 있어 기존의 한계를 극복한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새로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Albert & Luzzo, 1999; Lent, Brown & Hackett, 2000; Swanson et al., 1996; Swanson & Woitke, 1997). Swanson et al.(1997)은 이러한 이론적 틀 속에서 진로장벽을 개인의 진로 발달을 어렵게 만드는 개인 내적이거나 환경적인 사건이나 조건들로 정의했고 이 정의는 장벽이 진로 발달을

방해하는 개인 내적(자기-개념)이고 환경적인(작업장 차별) 요인 둘 모두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Crites, 1996). 따라서 최근의 진로장벽 연구자들은 대부분 이 총체적인 정의를 채택해왔다(McWhirter, 1997).

진로장벽에 대한 관심으로 연구가 시작된 초기에는 진로장벽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Crites(1969)는 직장에서의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방해조건(thwarting condition)이라 칭하였으며 장벽(barriers) 또는 지각된 장벽(perceived barriers)(shuttleworth, 1992), 진로와 관련된 장벽(career-related barriers)으로 명명한 경우도 있었다(Luzzo, 1998). 이후 Swanson & Tokar(1991)에 의해서 진로장벽검사(CBI : career barriers inventory)가 개발되고 관련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최근에는 점차 진로장벽이란 용어로 통일되어 가는 추세이다(손은령, 2001). 국내에서는 career barriers를 진로장벽(손은령, 2001)과 진로장애(김은영, 2001)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Swanson & Woitke(1997)는 진로장벽을 진로향상을 어렵게 만드는 개인 내부 혹은 환경 속의 사건이나 상황으로 정의하였다. 김은영(2001)은 진로장벽을 개인의 진로 관련 목표를 향하여 계획에 따라 여러 경험들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할 것으로 지각되는 여러 부정적인 사건이나 사태라고 정의하였다.

Swanson et al.(1995)은 career barriers inventory-revised(CBI-R)에서 직업이나 진로계획상의 진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진로장벽을 정의하고 진로장벽에는 심리적인 특성을 가진 내적장벽과 환경에서 주어지는 외적장벽이 있음을 부연하여 설명하였다.

London(1991)은 진로장벽이 개인, 직업 환경 또는 이 둘의 결합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상실, 핸디캡, 변화, 갈등, 기대와 직무 및 요구사항들의 증가, 낮은 수준의 고용, 부정적인 수행평가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후 Swanson et al.(1996)은 진로장벽의 요인을 보다 세분화하였다. 진로장벽을 대학생으로 그들이 지각하는 조사를 실시하여 13개의 하위척도를 가진 진로장벽

검사를 개발하였다. 여기에서 자신감의 부족 및 인간관계와 사회화의 어려움을 진로결정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설명하고 일반적인 자아존중감의 문제, 특정 직업에 대한 능력에 있어서 자신감의 부족, 가족과 친구들의 반대, 주위에 역할 모델이나 조언자의 부재, 취업을 할 때 자신을 PR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특정 직업을 얻기 위한 준비의 부적절하다는 느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2) 진로 이론에서의 진로장벽

본 연구에서는 전 생애적 발달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진로선택이나 결정, 진로태도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에게는 진로와 관련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학생 시기에 개인의 진로발달을 어렵게 하는 진로장벽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진로발달 과정에서의 장벽요인에 대한 지식은 진로계획 및 진로탐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진로발달에 대한 개인 차이 또한 고려해야 한다 (Farmer, 1985). 우선 진로발달적 측면에서 개인의 진로발달을 어렵게 하는 장벽요인을 고려한 기존의 진로 이론과 사회인지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진로이론

개인이 진로 및 직업을 결정하는 것은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순간적이고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 과정을 통해 변화·발달해 가는 발달적 과정(김충기, 1996)이다. Ginzberg et al.(1951), Super(1957), Crites(1969) 등의 학자들이 개인의 진로결정을 발달적 관점으로 보는 입장은 전 생애 과정에 걸친 종단적 측면을 중시하여 진로태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개인의 자아감의 변화과정을 강조한 이론이다.

이와 같은 진로발달이론은 개인이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데 있어 어떤 과정을 통해 변화하고 발달하는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마다 진로를 발달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차이들을 설명하는 데에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London & Greller, 1991; Swanson & Tokar, 1991). 또한 전 생애적인 발달과정을 강조한 반면 진로를 선택하고자 하는 그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제한점을 나타내고 있다(이기학, 1997).

한편, 진로발달이 결국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고, 의사결정모형을 이용하여 직업선택 시점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을 맞춘(Hilton, 1962) 진로의사결정이론은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효율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기 위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발달되어왔다(고향자, 1992). 진로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대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진로결정을 이행하기까지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그 과정이 중단되거나 지체될 수 있다. 이러한 최종적 진로결정에 이르기까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분류해 보고자 Gati, Krausz, Osipow(1996)는 진로결정 문제 척도(career decision difficulties questionnaire : CDDQ)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진로결정시의 어려움을 진로준비성 부족(lack of career preparation)의 문제와 정보부족의 문제(lack of information) 그리고 모순된 정보(inconsistent information)의 문제로 크게 세 개 범주로 구분하고, 이 세 개의 범주를 다시 10개의 하위목표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진로의사결정이론은 진로발달보다는 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진로에서의 장벽을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Miller & Form(1951) 같은 이론가들로 대표되는 사회학적 진로이론은 개인을 둘러싼 사회, 문화적 환경을 중시하기 때문에 진로선택이나 승진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거나 극복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예를 살펴보면 부모와 같은 중요한

사람들의 반대, 계급, 지방적 편견, 성별에 관련된 제한적 요소, 직장에서의 차별대우, 기타 사회 체제, 정치 체제, 경제 체제에 있어서의 장벽요소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김봉환 등, 2000).

이처럼 주로 사회학적 이론에서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이 직업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때문에 진로발달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개인 외적인 사회 환경적 문제에만 주로 초점을 두고 개인 내적인 심리적인 요인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진로발달 이론, 진로의사결정 이론, 사회학적 진로 이론 등은 개인의 심리 내적, 상황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진로발달에서의 장벽요인을 설명하는 데는 제한점을 드러내고 있다.

(2) 사회인지 진로 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 SCCT)

개인이 진로 발달과정에서 심리적 요소와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최근의 사회인지 이론을 적용한 Lent et al.(1994)의 사회인지모델은 진로 관련 장벽을 이해하는데 있어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연구자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Albert & Luzzo, 1999; Lent, Brown & Hackett, 2000; Swanson et al., 1996; Swanson & Woitke, 1997). 이 모델에서는 사회 인지적 기대 특히 자기효능감과 결과 기대가 진로선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개인의 흥미, 선택 목표, 선택 행동이나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인지모델에서는 개인적 요인, 맥락적 요인과 경험적인 요인들이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이 사회인지적 변인들이 흥미, 목표와 선택 행동들 간의 가정도니 관계를 중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맥락적인 영향은 흥미, 선택 목표에 대한 흥미, 그리고 선택 행동의 선택 목표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결과 기대의 관

계를 중재하기 위해 가정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 맥락요인들이 어떻게 진로선택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지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사회인지 이론에서는 진로선택 과정에 미치는 상대적 근접성에 따라 특정 환경적 변인을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 차원은 개인이 경험한 학습과정이 진로와 관련된 자기효능감과 기대 결과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배경요인들(distal background contextual factors)이고, 두 번째 차원은 배경요인들보다 핵심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맥락요인으로 개인의 교육단계나 진로결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직종참여 경험이나 진로정보 여부, 개인의 진로 네트워크 접촉, 진로경로에서의 어려움 등이 포함된다. 맥락요인들은 개인이 진로와 관련된 선택을 하게 하거나 수행하게 하여 진로발달 과정에 중재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하면 맥락요인들은 개인의 흥미와 선택, 그리고 진로목표와 행동 간의 관계를 중재한다(이은경, 2001).

사회인지모델에서는 진로장벽 즉, 모든 유형이 해로운 사건이나 조건들을 개인 내적인 것과 맥락적인 것으로 분류하면서 이런 영향들이 종종 같이 발생하고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Swanson & Tokar, 1991; swanson & Tokar, 1997). 그러면서도 진로발달을 방해하는 개인적 요인(예, 낮은 자기 효능감 등)과 맥락적인 요인들(예, 주요한 타인들의 불승인)을 구별하여 각각의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즉, 이 두 요인을 구별하는 것은 환경적인 장벽요인들이 개인 내면에 어떻게 내재화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 주며 환경적인 요인들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하는 대처전략을 살펴볼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장벽 구성개념을 고려하는 장벽유형과 장벽이 개념화되는 방식에 따라 여러 측면에서 사회인지이론으로 잘 설명되는데 어떤 장벽척도는 명백히 개인적 요인들(예, 자신감 부족, 의사결정의 어려움 등)과 가장 관련되고, 반면 어떤 장벽은 맥락적인 영향들(예, 인종 차별,

성차별, 비전통적인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 무능력-건강 문제 등)로 더 적절하게 고려된다. 장벽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맥락적인 영향(negative contextual influences)들로 언급되고 있으나 이러한 맥락적인 장벽은 앞서 보았듯이 불리한 개인적 요인들(예, 좋지 않은 학습 조건화는 자기효능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과 아직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Lent et al., (2000).

장벽 연구를 위한 사회인지모델의 가장 두드러진 장점은 장벽 구성개념을 더 확장된 체계적인 틀 속에서 다른 중요한 진로 변인들과의 관계를 허용하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어떻게 장벽에 직면하고 극복하는지를 언급하는 개입 전략을 찾아내게 하고 개입으로부터 가장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개인을 예측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Hackett & Byars,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지모델의 통합적인 이론적 틀 속에서 개인 내적이고 맥락적인 원천을 포함하는 다양한 원천에서 진로장벽이 기인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Swanson & Tokar, 1991), 체육전공자들이 지각하고 있는 진로장벽 요인들을 살펴보고 한다. 현실이나 실제적인 정보에 기인하는 객관적인 장벽요인보다는 현재 존재하거나 미래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 지각된 진로 관련 장벽들이 진로행동에 더 강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Albert & Luzzo, 1999; Swanson & Woitke, 1997).

3. 진로포부

1) 진로포부의 개념

인간은 누구나 행위에 우선하여 목표를 설정하기 마련이다. 이 때 어떠한 과업을 어느 정도까지 도달하려는 포부가 생긴다.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에 포부란 “마음속에 지닌 앞날에 대한 생각·계획이나 희망”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직업에는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직업과 현실적으로 가질 수 없는 직업들이 있다. 이러한 진로포부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누면 첫째는 완전한 최고의 상태를 회구하는 이상적 진로포부이고 둘째는 현실적인 장애와 조건들을 통해 형성된 현실적 진로포부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포부들은 현대 및 미래의 행동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들은 인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한편, 진로포부와 관련된 포부수준(level of aspiration)에 대해 Gates는 “어떤 개인이 어떤 일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는 미래의 성취 수준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Frank는 “한 개인이 어떤 과제에 대해 과거의 업적을 알고서 다음의 과제에 있어 도달하려고 하는 미래의 업적 수준”이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포부수준은 다소 현실적이지 않는 높은 목표를 지향한다.

정원식(1982)은 “학습자가 어떤 특수한 학습과제에 당면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취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즉, 구체적 과제에서의 성취도 또는 목표수준”을 포부수준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포부수준을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진로 포부수준은 각 개체가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당면하는 일에 대해 예상하고 희망하는 목표 또는 성취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정종화, 2002).

진로포부와 유사하게 보이는 직업포부(occupational aspiration)은 일정한 시점에서 개인이 택한 구체적인 하나의 직업을 의미하고 직업선호(occupational preference)는 개인이 좋아하는 직업과 싫어하는 직업을 변별하는 것 또는 변별했을 때 그가 선택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직업을 의미한다. 서구에서는 진로포부라는 말보다는 직업포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비해 국내의 연구에서는 국내의 학력경쟁 및 취업경쟁을 고려하여 개념화한 직업적 포부와 교육적 포부를 동시에 포괄할 수 있는 진로포부라는 개념을 사용한다(임용수, 1992).

Gottfredson(1981)은 진로 자아개념이 보다 현실성을 갖게 되는 진로발달은 자신의 자아개념의 발달에 따라 직업의 선택지를 좁혀가는 과정이라 하였고 이것을 수용 가능한 진로대안 영역(zone of acceptable alternatives)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진로포부의 발달은 여러 가능한 직업을 제외하는 것과 선택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진로 자아개념과 직업에 대한 이미지를 비교하고 그 일치성의 정도를 결정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개인의 진로포부는 형성된다(황매향, 김지현, 유정이, 2003).

Gottfredson(1981)은 이러한 진로포부의 발달에 대하여 단계를 나누어 설명한다. 1단계는 서열 획득단계(orientation to size and power)로 3-5세 시기에 아동들은 대상항상성 개념을 습득하는데, 어른들의 세상이 존재하고, 그 세계에서는 직업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2단계는 성역할 획득단계(orientation to sex role)로 6-8세가 여기에 해당된다. 자신의 성역할에 적합한 직업인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게 되어, 자신의 성역할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는 직업을 자신이 원하는 직업목록에서 제외시키게 된다.

3단계는 사회적 가치 획득단계(orientation to social valuation)로 9-13세가 해당된다. 또래 집단 및 타인의 사회적 평가에 민감해지고 사회적 계층·능력과 같은 보다 추상적인 자아개념이 사회적 행동과 기대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는 시기이다.

4단계는 내적 자아 확립단계(orientation of the internal, unique self)로서 자아정체감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로 14세 이후의 청소년이 해당된다. 이 단계에서 흥미, 가치, 능력이 구분되는 앞 단계에서 확립한 수용 가능한 진로대안 영역 안에서 진로탐색을 시작하게 된다.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가 적절하지 않는 대안들을 제외시키는 과정이라면, 4단계는 가능한 대안들 가운데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4단계에서 타협의 과정이 시작되어 어떤 선택이 가장 선호되고 수용되는 것인지 구체화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진로포부란 진로에 대한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앞으로 자기에게 적절하다고 생각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성공과 성취를 얼마나 동경하는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진로포부가 높은 사람들은 도전적이고 실패보다는 성공에 초점을 맞추며 목표달성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지각하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본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진로문제가 더욱 절실함을 염두에 둘 때 진로포부는 다른 영역에서 처럼 진로 영역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2)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관계

진로장벽은 직업이나 진로계획에 있어서 자신의 진로목표 실현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진로장벽의 선행연구들은 지각된 진로장벽이 진로선택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며, 이러한 진로장애의 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임은경, 1998).

진로포부와 진로장벽에 관련된 국내의 연구들 중에서 조단비(2003)는 전문대 여대생들이 포부수준이 낮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국내의 입시제도를 볼 때 전문대학의 입시일정이 4년제 대학보다 후에 시작된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

4년제 대학생과 전문대 여대생들이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진로장벽과 포부를 가로막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요인으로 차별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특성의 부족을 공통적으로 꼽았는데 차별이 높게 나타난 것은 여대생들이 당면한 직업현실과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손은령, 2001). 또한 진로상담자가 진로장벽의 내용과 관계성을 연구하는 것은 내담자로 하여금 진로장벽을 식별하고 현실과 지각된 장벽의 차이를 줄이도록 도울 수 있고 나아가 진로포부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진로장벽이 진로포부를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들은 진로장벽이 현실과 타협하면서 낮은 지위의 직업을 선택하게 하거나(Luzzo et al., 1996), 자신감을 낮게 하고 진로발달을 방해할 수 있음(O'Learly, 1974)을 제언하고 있다.

그러나 장벽의 지각이 어떻게 진로결정수준을 다르게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손은령(2001)의 제언은 실제 진로 장벽의 지각과 진로선택의 관계성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4. 진로결정수준

1) 진로결정수준의 개념

진로결정수준(career decision level)이란 자신의 전공선택 및 직업선택과 관련한 진로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행수준과 장래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정도를 일컫는 것으

로써 이는 곧 진로미결정수준을 의미하기도 한다(이성애, 2006). 진로미결정과 관련된 연구가 축적된 지금에는 진로미결정이라는 구성개념을 결정 대 미결정으로 이루어진 이분법적인 변인으로 보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것을 인식하여(Larson, Heppner, Han & Dugan, 1988) 진로결정과 미결정을 연속적인 차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진로결정수준을 향후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의 정도로써 확고한 진로결정과 진로미결정의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지점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김현수, 장기명, 이난, 2004). 여기서 진로결정이란 바람직한 진로교육을 통해서 진로설계와 계획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결과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결정적 시기에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된 상태, 또는 그러한 결정을 의미한다. 반면, 진로미결정은 진로결정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직업선택과 진로를 결정해야 할 단계에서 확실한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진로미결정자를 바라보는 가장 일반적인 시각인 발달적인 미결정자는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아직 결정을 못했거나 선택에 대해 몰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결정에 이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발달적 단계를 겪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반면에, 우유부단한 집단이나 만성적인 미결정 집단은 심리적인 문제들을 동반하는 사람들로 의사결정 시기가 왔을 때 반복적으로 계속 결정을 미루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자아정체감이 결여되어 있고 역기능적인 불안을 수반하는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에 대한 부적응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Fuqua & Harman, 1983).

결과적으로 발달적인 진로미결정(undecided)이란, 하나의 특성이기 보다는 상태로써 시간이 흐르면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가해지며 또 다시 새로운 결정을 하는 순환적인 과정의 하나인 반면에, 우유부단한(indecisive) 혹은 만성적인 미결정(chronic indecision)은 진로결정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결정상황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을 회피하려는 개인의 성격 특성을 나타낸다(Osipow, 1999).

이처럼 진로미결정자의 하위유형을 구분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Gordon(1998)은 진로 결정집단과 진로미결정집단의 하위유형이 연구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그는 15개의 진로미결정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여 다시 그 유사성에 따라 확실히 결정, 어느 정도 결정, 불안한 결정, 잠정적 미결정, 발달적 미결정, 매우 미결정, 만성적 우유부단의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결정-미결정의 연속선상에서 결정 유형 3범주, 미결정 유형 4범주로 연구의 유사성에 따라 정리된 것이다.

국내에서도 진로결정과 미결정의 하위유형을 유형화한 연구가 있는데 허자영(1996)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결정유형화 연구에서는 진로결정-확신있는, 진로결정-확신없는, 진로결정-정보필요, 진로결정-진로무관심, 진로미결정-불안정성의 유형을 확인하였다. 역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홍혜경(1998)은 진로결정상태모형을 구성하는 결정성, 편안성, 이유의 세 차원에 대한 군집분석을 시행한 결과, 세 차원에 따른 특성에 따라 안정결정형, 다재다능형, 잠정결정형, 불안결정형, 혼돈미결정형, 수행불안형의 6개의 군집이 존재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결론적으로 진로결정수준이란, 단순히 개인의 진로에 대해 결정된 수준만을 나타내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와 동시에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겪는 개인의 특성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 진로결정수준의 측정

진로미결정을 측정하는 일은 Holland & Holland(1977)의 VDMD(Vocational Decision-Making Difficulty Scale)을 시작으로 Osipow et al.(1976)의 CDS(Career Decision Scale), VDMD를 Hallond et al.(1980)이 개정한 MVS(My Vocational Situation), 단순하지만 실용성이 높아 최근에도 꾸준히 활용되고 있는

OAQ(Occupational Alternatives Question), 그 외에도 Jones & Chenery(1980)가 개발하고 후에 개정된 CDP(Career Decision Profile) 등 다양한 척도들이 개발되어 상담현장에서 혹은 연구를 위해서 활용되고 있다.

이중에서 진로결정수준과 관련된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사도구는 Osipow et al.(1976)이 개발한 이후에 개정되어 온 진로결정척도(Career Decision Scale; CDS)이다. CDS는 어떠한 이론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개발자들의 임상적 경험을 토대로 미결정의 원인을 알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다(유지선, 2004). CDS는 사람들로 하여금 학문이나 직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을 막는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는 문제가 있다는 가정하에 만들어 졌다(Osipow, 1987). 이러한 가정에 따라 CDS는 진로미결정의 구체적인 원인을 알아내고 각각의 항목마다 차별적인 상담전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Osipow(1987)에 따르면 이 척도는 진로미결정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진로미결정의 선행변인과 진로선택 과정과 관련된 개입의 효과를 측정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초기의 개발자들은 CDS가 구조와 확신의 결여, 인지된 외부적 장애, 긍정적인 선택갈등, 개인적인 갈등의 진로미결정의 4가지 미결정 원인과 관련된 차원으로 나누어진다고 제시하였으나 이 검사도구가 안정적인 하위요인을 가지고 있다는데에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

이 검사도구는 성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 정도를 측정하는 확신성 척도(Certainty Scale)와 진로에 대한 미결정 정도를 측정하는 미결정 척도(indecision scale)로 구성되어 있다. 확신성 척도는 처음 2문항으로 전공 선택과 지로에 대한 확신수준을 나타내며, 다음의 16문항은 미결정 차원으로 이는 개인의 진로결정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소를 확인하고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경험하고 있는 미결정 정도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전체 검사도구는 확신성 척도 2문항과 미결정 척도 16문항에 자유반응형 문항 하나가 첨가되어 있는데 마지막 자유반응형 문항은

피검자로 하여금 앞에서 반응한 내용을 명료화할 기회를 주나 채점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채점은 1-2문항과 3-18문항을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문항 1-2는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확신수준을 의미하며, 문항 3-18은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가 결정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3) 진로장벽 인식과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수준이란 자신의 전공선택 및 직업선택과 관련한 진로결정에 나타나는 진행 수준과 장래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정도를 일컫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확신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다.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까지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김은영(2001)은 자신이 개발한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에 대해서 진로결정 여부에 따른 진로장벽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진로결정 여부에 따라 전체 진로장벽과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높은 진로장벽을 보였다. 특히, 자기명확성 부족,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의 부족, 흥미부족, 미래 불안 영역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손은령(2001)의 연구에서는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의 관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자신이 개발한 진로장벽검사(여자대학생용)과 진로결정검사(Career Decision Scale : CDS)의 상관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여자대학생의 진로결정 상태에 따라 진로장벽을 지각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진로장벽 검사 총점과 진로결정검사 점수는 $-.42$ 의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고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에 따라 $-.17$ 에서 $-.56$ 의 상관을 보였다. 특히,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미결정 및 직업준비부

족 요인과 노동시장과 관습의 제약 요인이 큰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이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진로결정 상태에 따라 진로장벽검사 점수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진로결정검사 1번 문항(나는 진로를 결정했으며 그 결정에 대한 편안함을 느낀다)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여자대학생들을 진로결정집단과 진로미결정집단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 두 집단이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들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일원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7개의 하위요인(차별, 직장생활에 적합한 개인 특성의 부족, 다중역할로 인한 갈등, 미결정 및 직업 준비의 부족, 노동시장과 관습의 제약, 기대보가 낮은 직업 전망, 여성 취업에 대한 고정관념) 중 다중역할로 인한 갈등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에서 진로미결정집단이 높은 점수를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이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여자대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한 여자대학생보다 진로장벽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홍원(2002)은 손은령(2001)이 개발한 진로장벽검사(여자대학생용)과 진로결정검사(Career Decision Scale : CDS)를 활용하여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우선, 진로장벽검사의 총점과 각 하위요인의 점수에 대해서 진로결정 검사 점수와의 상관을 살펴보았는데 진로장벽검사 총점과 진로결정수준은 -0.48 의 부적상관을 보였고 진로장벽검사의 하위요인 역시 -0.22 에서 -0.67 의 부적상관을 보였다. 특히 직업준비부족과 관습의 제약 요인이 진로결정수준과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연미(2002)는 대학생들을 진로결정자와 진로미결정자로 나누고 이들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단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진로결정자는 진로미결정자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고 진로장벽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연미(2002)는 김봉환(1997)의 진로발달유형에 따라 대학생들을 A type(이상적인 유형;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 모두 높음), B type(진지하지 못한 유형; 진로결정수준은 높으나 진로준비행동이 낮음), C type(행동지향적인 유형; 진로결정수준은 낮으나 진로준비행동이 높음), D type(미성숙한 유형;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 모두 낮음)으로 나누고 이들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경우, 이들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상적인 유형인 A type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B type, C type, D type 순서로 나타났다. 진로장벽 역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진로결정수준은 낮으나 진로준비행동이 높은 C type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D type, B type, A type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집단 간의 평균차를 알아보기 위해서 Sche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 A type과 Π type, C type과 D type 사이에서만 진로장애가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것은 진로장벽의 지각에 진로준비행동 보다 진로결정수준이 더 결정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손은령(2002)은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장벽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진로결정수준은 진로장벽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고, 진로결정정도에 따라 여대생들을 진로결정집단, 중간집단, 진로미결정집단으로 나누어 진로장벽을 살펴보았는데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진로결정집단은 중간집단과 진로미결정집단에 비해서 진로장벽을 인식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손은령과 손진희(2005)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을 사회인지 진로이론을 중심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개인적 변인(성, 학년, 불안, 내외통제성), 맥락적 변인(지각된 진로장벽), 진로행동 변인(진로포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을 설정하고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고, 진로장벽 검사 점수의 상위 25%를 높은 장벽지각 집단으로

하위 25%를 낮은 장벽지각 집단으로 구분하고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과 맥락적 변인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진로장벽이 40%의 설명력을 보였고 학년이 추가적으로 3%의 설명력을 보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wanson, Daniels & Tokar(1996)의 연구에서는 진로미결정 및 직업정체성 변인과 진로장벽 검사 척도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성이 진로장벽검사와 준거변인과의 관계를 중재한다는 증거가 나타나기는 하였다. 예를 들면, 여자대학생과 남자대학생을 구분한 후 진로미결정과 진로장벽검사 척도의 상관을 살펴보았는데 여자대학생보다 남자대학생 집단에서 진로미결정과 지각된 진로장벽의 상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Lee(1994)의 연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녀는 한국 여자대학생 1275명을 대상으로 진로미결정과 관련 변인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진로결정검사(CDS : Career Decision Scale)와 과제 한정적인 직업적 자아효능감 척도(Task-Specific Occupational Self-Efficacy Scale)를 이용하였다. 진로결정검사(CDS)의 네 개 하위척도와 배경 변인의 관계를 사례 분석한 결과, 대학에 따라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의 관계가 불일치하게 나타났다. 두 개 대학에서는 여자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외적장벽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두 개 대학 여자대학생의 경우에는 진로결정수준이 낮을수록 외적장벽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별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Lee(1994)의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을 진로결정검사의 하위요인인 외적장벽에 대한 지각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 그리고 연구도구가 갖고 있는 심리 측정상의 문제나 표집 방법 또는 표집된 대학의 특성 차이로 인한 연구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Lee(1994)의 연구는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의 관계를 단순히 선형관계로 이해할

수만은 없으며 이 두 변인 사이를 매개하는 다른 변인이 있거나 여성 집단 내부의 특성 차이가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 결정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준다.

Swanson & Tokar(1991)도 어떤 사람에게는 지각된 진로장벽이 진로의사결정과정을 방해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지각된 진로장벽이 합리적인 진로탐색과 진로의사결정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Lee(1994)의 연구는 Swanson & Tokar(1991)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장벽 연구에 있어서 연구대상을 확장하기보다는 특정 집단을 선정하여 그 집단 내부에 존재하는 진로장벽 지각의 양상과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인식된 진로장벽과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들을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진로장벽의 인식은 진로결정수준과 부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은령과 손진희(2005)의 연구에서 진로결정수준과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의 40%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주목하여 살펴보았듯이 Lee(1994)의 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매개변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4) 진로장벽 인식,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의 인과모형

진로장벽의 인식은 진로결정을 위한 과제를 수행할 때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이러한 과제에 대한 개인의 유능감을 떨어뜨리거나 과제 자체를 회피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진로장벽의 인식은 진로를 선택할 때, 부정적인 기대나 갈등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나 진로장벽의 인식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즉, 진로장벽의 인식이 진로결정수준을

낮춘 집단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높은 집단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반된 연구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매개변인의 존재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매개변인으로는 자기효능감이 제시되었는데 진로장벽 인식과 진로결정수준,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Lent, Brown, Hackett(1994)의 사회인지이론과 Bandura(1997)의 가정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회인지이론은 진로장벽이 진로목표의 설정과 실행에 영향을 주는 경로에 대해 구체적인 가정을 제시하였다. 사회인지이론은 진로장벽이 흥미의 목표로의 전환, 목표의 행동으로의 전환을 중재하거나 혹은 진로목표와 행동에 직접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Bandura(1997)의 가정과 차이를 보이는데, 그는 진로장벽이 자기효능감을 통해 진로목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 두 가정을 검증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들이 시행되었다(Lent, Brown, Nota, & Soresi, 2003, Lent, Brown, Schmidt, Brenner, Lyons & Treistman, 2003).

Lent, Brown, Schmidt, Brenner, Lyons & Treistman(2003)은 공과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진로장벽이 자기효능감을 통해 진로목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모델(진로장벽이 진로목표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효능감에 의해 중재됨)이 진로장벽이 진로목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된 모델보다 자료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ent, Brown, Nota, & Soresi, 2003이 수행한 다른 연구에서는 Holland(1997)의 여섯 가지 흥미유형별로 진로장벽이 진로목표와 실행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의 여부가 탐색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 진로장벽이 진로목표에 미치는 영향은 실재적 유형을 제외한 다섯 가지 흥미 유형에서 모두 자기효능감에 의해 중재되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장벽이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을 포함해 .003(실제적 유형)에서 .320(예술적 유형)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진로장벽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진로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유사하게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반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효능감을 진로결정 관련 과업에 적용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없었으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진로장벽 인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영향 관계, 진로장벽 인식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영향 관계를 선행연구들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영향 관계를 보여주는 선행연구들(이성애, 2006; 장석진, 2005)을 통해서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에서 진로장벽 인식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들로 내외통제성과 특성불안을 살펴보았다. 즉, 내외통제성과 특성불안은 진로장벽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같은 진로장벽 상황에 처해있더라도 개인이 이러한 진로장벽에 대해서 통제의 소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혹은 평소에 느끼는 불안 수준에 따라서 진로장벽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관계모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내외통제성과 특성불안은 진로장벽 인식에 영향을 주고 진로장벽 인식은 진로결정수준을 저하시킨다. 또한 진로장벽 인식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도 떨어뜨리는데 이것을 결과적으로 진로결정수준을 더욱 저하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서울, 경기, 대구, 전남 지역 대학교의 태권도학과 여대생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표집은 유층집락무선 표집법(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을 이용하여 300명을 표집 대상으로 하였다. 회수된 설문 가운데 응답성이 불성실하거나 조사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9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291(97%)명의 설문지를 유효 표본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변인	구분	사례 수	계
학년	1학년	97(33.3)	291(100.0)
	2학년	80(27.5)	
	3학년	42(14.4)	
	4학년	72(27.1)	
진로결정	결정	120(41.2)	291(100.0)
	미결정	171(58.8)	

2. 조사도구

1)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설문지이다. 설문지는 크게 태권도 여자 전공자의 학년과 진로결정여부를 묻는 문항과 진로장벽, 진로포부, 진로결정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의 구성은 김선중(2005)의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홍원(2002)의 ‘여대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최수욱(2003)의 ‘여대생의 진로포부에 영향 미치는 요인 탐색’에 사용한 질문지를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2)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조사도구 측정항목 변인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검증인 Cronbacj's alpha 계수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장벽의 문항 간 신뢰도는 직장에 대한 부정적 장벽 요인 $\alpha = .796$, 진로시 무계획 장벽 요인 $\alpha = .716$, 경제적 장벽 요인 $\alpha = .677$, 자아 부정적 장벽 요인 $\alpha = .703$, 주위 지원 장벽 요인 $\alpha = .729$, 주위 부정적 장벽 요인 $\alpha = .669$, 여성편견 장벽 요인 $\alpha = .679$ 로 대부분의 요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진로포부의 문항 간 신뢰도는 리더 포부 요인 $\alpha = .756$, 무노력 포부 요인 $\alpha = .666$, 노력포부 요인 $\alpha = .777$ 로 대부분의 요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수준의 문항 간 신뢰도는 회의적 수준 요인 $\alpha = .720$, 부정적 수준 요인 α

=.587, 도움 필요 요인 $\alpha = .552$, 결정된 수준 요인 $\alpha = .712$ 로 부정적 수준 요인과 도움 필요 수준 요인은 비교적 낮은 값으로 나타났고, 회의적 수준요인과 결정된 수준 요인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3. 구성개념들간의 상관관계

상관관계분석은 연구하고자 하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구성개념들의 관계가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연구가설에서 제시 한 변수들 간의 관계의 방향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관계

변인	M	SD	1	2	3
진로포부	2.942	.747	1.000		
진로결정수준	2.880	.802	.203**	1.000	
진로장벽	2.786	.756	.085	.486**	1.000

** : $p < .01$

4.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할 자료처리방법은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태권도 선수들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측정된 자료가 실증분석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내적일관성 검증인 Cronbach's alpha 계수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와 변수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변인들 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기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여자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여자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장벽이 회의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기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자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요인인 회의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모형의 유의도에 있어 F값은 $p < .000$ 에서 16.307로 나타나 본 분석의 회귀모형식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에 따른 종속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 .287$ 로 이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요인인 회의적 수준에 28.7%의 설명력을 나타낸다. 여자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요인인 회의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직장부정적 장벽, 진로시 무계획 장벽, 경제적 장벽, 주위 지원 장벽이 회의적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진로장벽이 회의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Std.E	β	t
(상수)	.187		5.798***
직장 부정적 장벽	.062	.100	1.407
진로시 무계획 장벽	.054	.217	3.457***
경제적 장벽	.060	.172	2.905**
자아 부정적 장벽	.053	-.017	-.274
주위 지원 장벽	.059	.173	2.537*
주위 부정적 장벽	.054	.026	.446
여성 편견 장벽	.056	.038	.606
R ²		.287	
F		16.307***	

* : p<.05, ** : p<.01, *** : p<.001

여자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장벽이 부정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기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자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요인인 부정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모형의 유의도에 있어 F값은 p<.000에서 20.167로 나타나 본 분석의 회귀모형식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에 따른 종속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²=.333로 이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요인인 부정적 수준에 33.3%의 설명력을 나타낸다. 여자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요인인 부정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직장 부정적 장벽, 진로시 무계획 장벽, 경제적 장벽, 주위 지원 장벽, 여성 편견 장벽이 부정적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진로장벽이 부정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부정적 수준	
	b	Std.E	β	t
(상수)	1.018	.196		5.182***
직장 부정적 장벽	.177	.065	.187	2.715**
진로시 무계획 장벽	.222	.056	.240	3.946***
경제적 장벽	-.086	.063	-.078	-1.369
자아 부정적 장벽	.012	.056	.014	.222
주위 지원 장벽	.137	.062	.145	2.198*
주위 부정적 장벽	-.022	.057	-.022	-.391
여성 편견 장벽	.195	.059	.203	3.319***
R^2	.333			
F	20.167***			

* : $p < .05$, ** : $p < .01$, *** : $p < .001$

여자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장벽이 도움필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기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자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요인인 도움필요 수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모형의 유의도에 있어 F값은 $p < .000$ 에서 4.588로 나타나 본 분석의 회귀모형식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에 따른 종속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 .333$ 로 이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요인인 도움필요 수준에 10.2%의 설명력을 나타낸다. 여자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요인인 도움필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경제적 장벽이 도움필요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진로장벽이 도움필요 수준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부정적 수준	
	b	Std.E	β	t
(상수)	1.848	.265	-	6.983***
직장 부정적 장벽	-.124	.088	-.112	-1.404
진로시 무계획 장벽	.024	.076	.022	.314
경제적 장벽	.185	.085	.144	2.171*
자아 부정적 장벽	.025	.075	.024	.339
주위 지원 장벽	.159	.084	.145	1.884
주위 부정적 장벽	.135	.076	.116	1.771
여성 편견 장벽	.076	.079	.068	.959
R^2	.102			
F	4.588***			

* : $p < .05$, *** : $p < .001$

여자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장벽이 결정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자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요인인 결정된 수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모형의 유의도에 있어 F값은 $p < .000$ 에서 1.976로 나타나 본 분석의 회귀모형식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에 따른 종속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 .047$ 로 이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요인인 결정된 수준에 4.7%의 설명력을 나타낸다. 여자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요인인 결정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진로시 무계획 장벽이 결정된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진로장벽이 결정된 수준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부정적 수준	
	b	Std.E	β	t
(상수)	3.453	.287		12.028***
직장 부정적 장벽	-.060	.095	-.052	-.632
진로시 무계획 장벽	-.239	.082	-.211	-2.895**
경제적 장벽	-.092	.092	-.068	-.994
자아 부정적 장벽	.062	.081	.057	.768
주위 지원 장벽	.116	.091	.100	1.270
주위 부정적 장벽	.062	.083	.051	.748
여성 편견 장벽	-.018	.086	-.015	-.210
R ²			.047	
F			1.976	

** : p<.01, *** : p<.001

2. 여자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포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여자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포부가 회의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자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포부이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요인인 회의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모형의 유의도에 있어 F값은 p<.000에서 11.344로 나타나 본 분석의 회귀모형식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에 따른 종속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²=.106로 이는 진로포부가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요인인 회의적 수준에 10.6%의 설명력을 나타낸다. 여자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포부가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요인인 회의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리더포부와 무노력 포부

가 회의적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진로포부가 회의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부정적 수준	
	b	Std.E	β	t
(상수)	1.938	.285		6.805***
리더 포부	.147	.064	.150	2.312*
무노력 포부	.267	.049	.319	5.401***
노력 포부	-.070	.049	-.091	-1.422
R ²	.106			
F	11.344***			

* : p<.05, *** : p<.001

여자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포부가 부정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기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자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포부이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요인인 부정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모형의 유의도에 있어 F값은 p<.000에서 8.444로 나타나 본 분석의 회귀모형식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에 따른 종속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²=.081로 이는 진로포부가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요인인 부정적 수준에 8.1%의 설명력을 나타낸다. 여자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포부가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요인인 부정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리더포부와 무노력 포부가 부정적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진로포부가 부정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부정적 수준	
	b	Std.E	β	t
(상수)	2.254	.314		7.187***
리더 포부	.059	.070	.056	.847
무노력 포부	.239	.054	.264	4.399***
노력 포부	-.080	.054	-.096	-1.481
R ²			.081	
F			8.444***	

*** : p<.001

여자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포부가 도움필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자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포부인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요인인 도움필요 수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모형의 유의도에 있어 F값은 p<.000에서 2.010로 나타나 본 분석의 회귀모형식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에 따른 종속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²=.021로 이는 진로포부가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요인인 도움필요 수준에 2.1%의 설명력을 나타낸다. 여자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포부가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요인인 도움필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진로포부의 모든 요인이 부정적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 진로포부가 도움필요 수준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부정적 수준	
	b	Std.E	β	t
(상수)	1.938	.376		6.125***
리더 포부	.104	.084	.084	1.235
무노력 포부	.108	.065	.103	1.662
노력 포부	.076	.065	.078	1.165
R ²			.021	
F			2.010	

*** : p<.001

여자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포부가 결정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기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자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포부이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요인인 결정된 수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모형의 유의도에 있어 F값은 p<.000에서 2.694로 나타나 본 분석의 회귀모형식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에 따른 종속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²=.027로 이는 진로포부가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요인인 결정된 수준에 2.7%의 설명력을 나타낸다. 여자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포부가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요인인 결정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진로포부의 모든 요인이 결정된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0. 진로포부가 결정된 수준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부정적 수준	
	b	Std.E	β	t
(상수)	2.074	.394		5.257***
리더 포부	.104	.088	.080	1.180
무노력 포부	.040	.068	.036	.591
노력 포부	.123	.068	.121	1.804
R ²	.027			
F	2.694*			

* : p<.05, *** : p<.001

V. 결론 및 논의

1. 결론

여자 태권도 선수들의 진로장벽과 진로포부가 진로결정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자 서울, 경기, 대구, 광주에서 태권도 학과에 재학중인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여자 태권도 선수들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직장부정적 장벽, 진로시 무계획 장벽, 경제적 장벽, 주위 지원 장벽이 회의적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여자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요인인 부정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직장 부정적 장벽, 진로시 무계획 장벽, 경제적 장벽, 주위 지원 장벽, 여성 편견 장벽이 부정적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여자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요인인 도움필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경제적 장벽이 도움필요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요인인 결정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진로시 무계획 장벽이 결정된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포부가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요인인 회의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리더포부와 무노력 포부가 회의적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포부가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요인인 부정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리더포부와 무노력 포부가 부정적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포부가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요인인 도움필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진로포부의 모든 요인이 부정적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포부가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요인인 결정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진로포부의 모든 요인이 결정된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논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여자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장벽과 진로 포부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자가 설정한 가설에 대한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자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무계획 장벽과 경제적 장벽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 태권도 전공자의 가장 큰 진로장벽의 요인이 무계획 장벽으로 다른 학과 전공생에 비해 진로의 폭이 작고 태권도전공자들이 대학생활 동안 계획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기 보다는 졸업과 학비마련에만 급급한 현실을 시사한 결과이다. 또한 태권도 학과 특성상 전공실기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입학할 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전공에 관한 공부를 하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재욱(1998)의 연구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정규 교과과목 이외의 과목과 관련된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 따라서 그에 관련된 다양한 커리큘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이 전체적인 태권도 관련 분야보다는 포괄적이고 세분화된 연구를 한다면 각자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더 전문화 된 역량을 발휘하게 되어 태권도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본다. 특히 여자 태권도 전공자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태권도 관련 단체 뿐만 아니라 여러 스포츠 단체에 활동을 하여 경험을 쌓는 것이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경제적 장벽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여자 태권도 전공자들이 졸업 후에도 태권도 사범 및 대학원 진학 등 정규직에 취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경제적으로 주위의 도움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여자 태권도 전공자들은 보수나 승진과 관련된 부분에서 아직까지 불이익을 받음을 의미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여성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으나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무도 스포츠인 태권도 분야에서는 아직 현실적으로 먼 얘기라 할 수 있다. 특히 태권도 수련 연령 자체가 점차 어려워지면서 여자 태권도 전공자를 구하려는 노력은 많이 하나 그와 관련된 보수수준이라던지 임금에 대하여 아직까지는 현실적이지 못한 것들이 사실이다. 태권도 관련 분야의 종사자들은 이러한 현실을 십분 반영하여 여성 태권도 전공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자 태권도 전공자들의 진로포부가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가장 높은 요인으로는 무노력 포부였다. 무노력 포부는 진로포부의 요인 중 가장 부정적인 요인으로 진로결정 수준을 낮아지게 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겠다(Luzzo & Jenkins, 1996)의 연구에서 진로장벽이 진로 결정을 하는데 부적인 상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진로 결정과 관련하여 무노력 포부는 결국 진로포기와 마찬가지로 이는 진로결정을 하는데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노력의 정도를 전혀 보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자신의 제약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포부자체를 갖으려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포부를 원대하고 크게 설정하여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일선에서 여자 태권도 전공자들의 진로상담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은 여자 태권도 선수들이 원대한 포부를 갖도록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향자(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곽윤숙(2002). 여대생의 성역할 태도와 전공선택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회, 40(1), 287-310.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영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영(2001). 한국 대학생 진로타매장애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충기(1986). 한국 학생 생활지도의 현실과 과제. 새마을연구논문집, 5(1), 39-59.
- 김충기(1995). 교육개혁에 따른 고등학교 직업 진로교육의 방향. 진로교육연구, 4, 60-78.
- 김현옥(198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아청(1990). Erikson의 성격발달이론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보완. 대구;계명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 서우석(2000). 초등학교 진로 교육의 실태와 방향. 인천교육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대학생생활연구 12.
- 손은령(2001).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학(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의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학, 이학주(2000).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변인으로서의 자기-효

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7-136.

이봉훈(1993). 고등학교 운동선수의 진로의식에 관한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은경(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재창(1986). 대학생의 진로상담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논집, 12, 81-99. 홍익대학교 교육연구소.

정홍원(2002). 여대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허자영(1996). 대학생 진로결정유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혜경(1998). 진로결정상태모형에 의한 대학생의 진로결정상태의 유형화.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황매향, 김지현, 유정이(2003). 중고등학생의 직업인식 발달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1(1), 3-12

Aaker, D. A., and G. S. Day(1978). Consumerism Search for the Consumer Interest, 3rd ed., New York; Free Press.

Ames, C.(1984). competitive, cooperative & individualistic goal structures; A motivational analysis. In Ames, R & Ames, C.(Eds.), vol.1 pp.177-207, NY; Academic Press.

Anderson, E. W., Fromell, C., & Lehmann, D. R.(1994). Customer market share and profitability; finding from sweden. Journal of Marketing, 58(3), pp. 53-66.

Anderson, Ralph E.(1973). "Consumer Dissatisfaction ; The Effect of Disconfirmed Expectancy on Perceived Product Performance". Journal of Marketing

- Research, vol 10, pp. 38-44.
- Andreasen, Alan R.(1985). "Consumer Response to Dissatisfaction in Loose Monopoli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12, pp.135-141.
- Bearden, W. O., and Jesse E. Teel(1983). "Selected Determinants of Consumer Satisfaction and Employee Respons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20, pp.69-82.
- Cardozo, R. N.(1965). An experimental study of consumer effort, expectation and satisfact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3), pp. 244-249.
- Churchill, Gilbert A., and Carol Superenant(1982). "An Investigation into the Determinants of Customer Satisfact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9, pp. 491-504.
- Cohen, J. B., & Goldberg M. E.(1970). The dissonance model in post-decision product evaluat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7(3), pp. 315-321.
- Csikszentmihalyi, M.(1975). *Beyone boredom and anziety*. San Francisco; Jossey-Base.
- Czepiel, John A., and Larry J. Rosenberg(1977). "Consumer Satisfaction; Concept and Measurement",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vol5. pp.403-411.
- Deci, E. L.(1975). *Intrinsic Motivation*. N.Y.;Plenum Press.
- Erevelles, Sunil, and Clark Leavitt(1992). "A Comparison of Current Models of Consumer Satisfacion/Dissatisfaction", *Journal of Consumer Satisfacion, Disatisfaction and Complaining Behavior*, Vol.5 pp.105.
- Festinger, Leon(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Stanford, California;

Sranford Press.

- Fisk, R. P., & Young, C. E.(1985). Disconfirmation of equity expectations; Effects on consumer satissfaction with service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2(1), pp. 340-345.
- Geertz, C.(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Basic Books Classics, 412-454. 문옥표 역(1998). *문화의 해석*. 서울;까치.
- Haines, G. H. Jr.(1979). "The Papers on Consumer Satisfaction/Dissatisfaction; A Comment". *Advances in CConsumer Research*, 6, pp. 450-452.
- Helson, H.(1964). *Adaptation-level theory*. New York; Harper & Row.
- Herzberg, Frederick(1968). "One More Time; How Do You Motivate Employees?" *Harvard Business Review*, vol.46.
- Herzberg, Frederick, B. Mausner, and B Snyderman(1959). *The Motivation to Work*, 2nd ed.,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 Hirschman, Albert O.(1970). *Exit, Voice, and Loyal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ovland, I. C., Harvey, O. J., & Sherif, M.(1957). Assimilation and contrast effects in reactions to communication and attitude chang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5(July),, pp. 244-252
- Howard, John A., and Jagdish. N. Sheth(1969). *The Theory of Buyer Behavior*.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Huizinga, J.(1955). *Homo, Ludens*. Boston; Beacon Press. 김윤수 역(1999). *호모루덴스; 놀이와 문화에 관한 연구*. 서울;까치.
- Jackson, S. A. & Roberts, G. C.(1992). Positive performance states of athletes :

- Toward a conceptual understanding of peak performance. *The Sport Psychologist*. vol.6, pp.156-171.
- LaTour, S. A., & Peat, N. C.(1979).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consumer satisfaction research. *Advance in Consumer Research*, 6(1), pp. 431-437.
- Maehr, M. L. & Braskamp. L.(1986). The motivation factor; of ability, subjective experience, task choice, and performance. *Psychological Review*, vol.91. pp.328-346.
- Miller, John A.(1977). "Studying Satisfaction, Modifying Models, Eliciting Expectation, Posing Problems and Marketing Meaningful Measurement",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Consumer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Proceeding of the 1st Annual Consumer Satisfaction/Dissatisfaction and Complaining Behavior Conference, MSI, April pp. 11-13 H. Keith Hunt, ed. pp.72-91.
- Myers, J. H.(1988). Attribute deficiency segmentation; measuring unmet want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5(1), pp. 108-113.
- Oliver, Richard L.(1976). "Hedonic Reaction to the Disconfirmation of Product Performance Expectations; Some Moderation Condi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1, pp. 246-250.
- Oliver, Richard L.(1976). Hedonic Reaction to the Disconfirmation of Product Expectation; Some Moderation Condi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1, pp. 246-250.
- Oliver, Richard L.(1980). "A Cognitive Model of the Antecedent and Consequences

- of Satisfaction Decision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17. pp.460-469.
- Oliver, Richard L., and Wayne S. DeSarbo(1988). Response Determinants in Satisfaction Judgement",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14. pp.495-507.
- Oliver, Richard L.,(1977). Effect of expectation and disconfirmation on postexposure product evaluations;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2(4), pp. 480-4886.
- Olshavsky, Richard W., and John A. Miller(1972). "Consumer Expectation, Product Performance and Perceived Product Quality",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9, pp.19-21.
- Olson, Jerry C., and Philip Dover(1976). "Effect of Expectation Creation and Disconfirmation of Belief Element of Cognitive Structure", *Advance in Consumer Research*, vol.3 pp.168-175.
- Pilips, E.(1976). *Neasurment and evaluation in physical education*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 Spreng, R. A., MacKenzie, S. B., & Olshavsky. R. W.(1996). A reexamination of the determinants of consumer satisfaction. *Journal of Marketing*, 60(3), pp. 15-32.
- Swan, John E., and L. Frederick Trawick(1981). "Disconfirmation of Expectation and Satisfaction with a Retail Service", *Journal of Retailing*, vol,57, pp.49-67.
- Swan, John E., and Linda J. Combs(1976). "Product Performance and Consumer Satisfaction; A New Concept", *Journal of Marketing*, vol.40, pp.25-33.
- Tolman, E. C.(1932). *Purposive Behavior in Animals and Men*. New York; Appleton-Century.
- Tse, D. K., & Wilton, P. C.(1988). Models of consumer satisfaction formation; An

- extens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5(2), pp. 204-212.
- Westbrook, Robert A., and Michael D. Reilly(1983). "Value-Percept Disparity; An Alternative to the Disconfirmation of Expectations Theory of Consumer Satisfaction", *Advance in Consumer Research*, vol.10, pp.256-261.
- Woodruff, R. B., Cadotte, E., & Jekins, R. L.(1983). Modeling consumer satisfaction processes using experience based norm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0(3), pp. 296-304.
- Yi, Y. J.(1990). A critical review of consumer satisfaction in review of marketing. Valarie A. Zeithaml, ed., Chicago, IL;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pp. 68-123.

설문지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교수님 성함)교수님 지도하에 태권도 선수의 전자호구에 대한 기대 일치/불일치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학술논문 준비를 위한 연구과정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것으로써 귀하의 답변은 소중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의 각 문항에는 정답이나 오답이 없으며 응답하신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답변은 본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 자료의 기초가 되오니 한 문항이라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의 발전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연구자 : 조선대학교 체육교육전공 석사과정

지도교수 : 조선대학교 체육교육전공 교수

연락처 :

e-mail :

* 설문에 응답하시기에 앞서 다음의 질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년 :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2. 당신은 진로를 결정하였습니까?

■ 결정하였다() ■ 미결정 상태이다()

번호	문항	진혀 방해 하지 않을 것이 다	별로 방해 하지 않을 것이 다	보통 이다	대체 로 방해 하지 않을 것이 다	매우 방해 하지 않을 것이 다
1	나는 내 진로분야에서 리더가 되고 싶다.	■	■	■	■	■
2	나의 진로에서 자리가 잡히면 나는 다른 직원을 관리하고 싶다	■	■	■	■	■
3	나는 내가 흥미 있어 하는 분야의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것이다.	■	■	■	■	■
4	내가 일하고 있는 조직 혹은 사업 분야에서 승진을 위해 에너지를 쏟을 계획은 없다.	■	■	■	■	■
5	내 진로에서 자리가 잡히면 다른 사람들을 훈련하고 싶다.	■	■	■	■	■
6	내가 일하고 있는 조직이나 사업을 통해 승진을 하고 싶다.	■	■	■	■	■
7	특정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교육을 마친 후에는 계속하여 교육받을 필요를 못 느낀다.	■	■	■	■	■
8	나의 직업분야에서, 졸업 후에도 훈련을 계속 받고 싶다고 생각한다.	■	■	■	■	■
9	내가 관심 있는 직업분야에서, 졸업 후에도 훈련을 계속 받고 싶다고 생각한다.	■	■	■	■	■
10	내 직업에서 지도자 위치를 얻는 것이 나에겐 그리 중요하지 않다.	■	■	■	■	■

번호	문항					
1	직장생활을 잘 해 나갈 자신이 없다.	■	■	■	■	■
2	나의 가사책임과 직장에서의 직무책임을 조화롭게 하기가 힘들다.	■	■	■	■	■
3	직장에서 나를 이끌어 줄 만한 선배나 동문을 모른다.	■	■	■	■	■
4	국내 경제상황의 변화 때문에 내 진로를 계획하기 힘들다.	■	■	■	■	■
5	내 직업 선택을 주변사람들(부모, 친구, 친지 등)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	■	■	■	■
6	직업을 통해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	■	■	■	■
7	나의 신체적 조건이나 외모로 인해 취업 시 차별을 받는다.	■	■	■	■	■
8	결혼 및 출산계획과 진로 계획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어렵다.	■	■	■	■	■
9	나 자신에 대해 매사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	■	■	■	■
10	자녀가 있거나,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차별을 받는다.	■	■	■	■	■
11	내가 원하는 직업이 나의 성에는 적합하지 않다.	■	■	■	■	■
12	직장에서 필요한 능력에 비해 내가 너무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	■	■	■	■
13	어떻게 취직해야 할지 방법을 모른다.	■	■	■	■	■
14	특별한 인맥이나 배경이 없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성공 할 것 같지 않다.	■	■	■	■	■
15	상사가 나의 성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다.	■	■	■	■	■
16	어린 자녀를 두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	■	■	■	■
17	직장생활이 결국에는 실패로 끝날까봐 두렵다.	■	■	■	■	■
18	내 성격 특성이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적합하지 않다.	■	■	■	■	■
19	직장생활을 유지 할만한 체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	■	■	■	■
20	직업의 종류와 그 전망 등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	■	■	■	■

번호	문항					
21	가정에서의 스트레스가 내 직장생활에 영향을 준다.	■	■	■	■	■
22	내가 원하는 직업의 보수가 낮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아 염려된다.	■	■	■	■	■
23	나는 위계적인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힘들다.	■	■	■	■	■
24	부모님이나 주변사람들이 나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높아 부담스럽다.	■	■	■	■	■
25	자녀로 인해 내 직장생활이 방해받는다.	■	■	■	■	■
26	나는 여성이기 때문에 특정 직업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	■	■	■
27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내가 취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	■	■	■	■
28	내 직업선택을 애인이나 배우자가 지지해 주지 않는다.	■	■	■	■	■
29	직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예 : 의사표현력, 지도력, 의사 결정력 등)이 부족하다.	■	■	■	■	■
30	내가 원하는 직장의 보수가 너무 낮다.	■	■	■	■	■
31	자녀로 인해 직장에서 어렵게 얻는 기반을 유지하기 힘들다.	■	■	■	■	■
32	직장생활을 잘 해나갈 만한 끈기가 없다.	■	■	■	■	■
33	나의 진로 목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진로계획이 계속 바뀐다.	■	■	■	■	■
34	직장에서 승진해 나가는 방법을 모른다.	■	■	■	■	■
35	배우자(애인)의 직장이 바뀌어서 내 직장이나 직무를 바꾸어야 한다.	■	■	■	■	■
36	연령 때문에 취업이나 직무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다.	■	■	■	■	■
37	직장에서 대인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	■	■	■	■
38	직장생활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자격증이 없다.	■	■	■	■	■
39	남성위주의 조직사회에서 생활해 나가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	■	■	■	■
40	내가 기혼자일 경우 차별을 받을 것이다.	■	■	■	■	■

번호	문항					
41	내가 원하는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적어 보인다.	■	■	■	■	■
42	나의 모든 역할들(부모, 배우자, 직업인 등)을 잘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다.	■	■	■	■	■
43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 승진, 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	■	■	■	■
44	내가 갖고 시은 직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진로를 결정하기 힘들다.	■	■	■	■	■
45	배우자가 내 진로 목표보다 자녀 양육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떠한가.	■	■	■	■	■
46	내 성에 대한 사회의 고정관념 때문에 직장에서 치신하기가 곤란하다.	■	■	■	■	■
47	직장분위기(상사 및 직장동료)가 여성의 능력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	■	■	■	■	■
48	직장생활을 잘 해나가고자 하는 의욕이 부족하다.	■	■	■	■	■
49	내 연고지나 학벌로 인해 직장생활에 불이익이 있다.	■	■	■	■	■
50	전통적으로 내 성에 어울리지 않다고 인식된 직업을 구하기가 어렵다.	■	■	■	■	■
51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	■	■	■	■
52	부모 역할과 직장인 역할을 함께 수행해 나가기 어렵다.	■	■	■	■	■
53	직장상사나 동료로부터 성적으로 희롱 당한다.	■	■	■	■	■
54	직무분담에 있어서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	■	■	■	■	■
55	내가 원하는 직업의 사회적 지위가 낮다.	■	■	■	■	■
56	남성들이 주로 하는 분야의 직업(예 : 토목기사)을 원한다면 그 직장에서 취업이나 직장생활이 힘들 것이다.	■	■	■	■	■

번호	문항					
1	나는 장래직업을 결정했으며 그 결정에 대해 편안함을 가진다.	■	■	■	■	■
2	나는 현재의 내 전공에 편안함을 느낀다.	■	■	■	■	■
3	나에게 재능이 있고 기회도 주어진다면 나는 ___가(이) 될 수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나는 다른 어떤 대안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	■	■	■	■
4	나는 똑같이 호감이 가는 직업들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느라고 예를 먹고 있다.	■	■	■	■	■
5	나는 결국 직업을 가져야 하지만 내가 아는 어떤 직업에도 호감을 느끼지 못한다.	■	■	■	■	■
6	나는 ___가(이) 되고 싶지만 가족이나 친지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당장 진로결정이 어렵다. 내 자신과 그들의 생각이 일치되는 직업을 발견하고 싶다.	■	■	■	■	■
7	본 경험이 별로 없고 당장 진로결정을 할 정도의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	■	■	■	■
8	진로선택에 관한 모든 것이 너무 모호하고 불확실해서 당분간 결정하는 것을 보류하고 싶다.	■	■	■	■	■
9	나는 내가 어떤 진로를 원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다른 진로를 모색하려고 한다.	■	■	■	■	■
10	나의 진로선택에 확신을 갖고 있지만 내가 아는 어떤 진로도 나에게 이상적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	■	■	■	■
11	진로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버리고 싶다. 내가 어떤 진로를 택해야 할지 알려줄 수 있는 검사라도 받고 싶다.	■	■	■	■	■
12	나의 전공분야에서 내가 만족할 만한 진로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	■	■	■	■
13	나는 나의 적성과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로결정을 당장 할 수 없다.	■	■	■	■	■

번호	문항					
14	나는 나의 관심분야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른다. 흥미를 끄는 분야가 몇 가지 있지만 나의 진로 가능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	■	■	■	■
15	나는 많은 분야에 관심이 있으며,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지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하나의 직업을 찾기가 힘들다.	■	■	■	■	■
16	나는 진로결정을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 확실하지가 않다. 내가 선택한 ____ 가 (이) 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	■	■	■	■
17	진로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직업들에 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	■	■	■	■
18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알고 있지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	■	■	■	■

☺ 장시간 동안 설문 응답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